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3. No. 2, 2002

四象人 病證과 心身醫學과의 관계 (精神醫學의 관점으로 본 四象醫學)

김근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Relation of Sasang Constitution diseases and Mind-Body Medicine (Sasang Constitutinal Medicine from the psychiatry point of view)

Geun-Woo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investigation of mutual relation to a psychosomatic disorder and Sasang Constitutinal Medicine.

Results :

1. A view of the body and mind, Sasang Constitutinal Medicine is similar to Mind-Body Medicine that a thought of the mind is the central idea. But a viewpoint of the mind to Sasang Constitutinal Medicine is based on Confucianism idea
2. The Nature and Emotion(性情)-a symbol of Happiness, Anger, Sorrow Joy(喜怒哀樂) show a characteristic of man relate to an attack of a disease also take a disease itself. But Mind-Body Medicine recognize an attack of a disease caused only by the mind.
3. Sasang Constitutinal Medicine emphasize the care of health by respective The Nature and Emotion(性情) to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 and drug therapy is an assistant. This is similar to an important meaning at psycho therapy-suggestive therapy, autogenic training, relaxation training etc in Mind-Body Medicine.

Conclusions : Therefore, Sasang Constitutinal Medicine's clinical use in aspect of psychiatry, must to study human nature regard to korean traditional thought-Confucianism idea

Key Word: Sasang Constitutinal Medicine, Mind-Body Medicine, The Nature and Emotion, Psychosomatic Disorder.

I. 서론

· 교신저자 : 김근우,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신경정신과(Tel 031-710-3740, FAX 031-710-3740, E-mail: kgwoo86@hanmail.net)
* 본 논문은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신체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본다. 정신(心)과 신체(形)이 분리된 것을 질병으로 보았고, 그 극단적인 경우를 죽음이라

고 하여, 건강은 정신과 육체의合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¹⁾ 이러한 한의학 고유의 心身觀이 心性論으로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여 임상의학으로 발달된 것이 사상의학이다. 그러나 內經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과 사상의학의 병리적 관점에는 차이가 있는데, “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 所欲 喜怒哀樂 偏着者 爲病 而但知脾胃水穀 風寒 暑濕觸犯者爲病也”이라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의 條文은 기존의 한의학과 사상의학의 疾病觀의 차이를 대표하는 내용이다. ‘古之醫師’ 즉 한의학의 보편적 인식은 陰陽五行思想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및 인체 內因적인 요소로서 발병의 근거를 삼았다면 사상의학은 儒學的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그 병리현상의 場은 ‘天下’ 즉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형성되는 여러 형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로써 인식되어졌다²⁾. 그러므로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본문을 시작하면서 性命論에 “天機有四 一曰 地方 二曰 人倫 三曰 世會 四曰 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 交遇 四曰事務”라 하여 인간 삶이 이루어지는 요소가 ‘地方 人倫 世會 天時’와 ‘居處 黨與 交遇 事務’인데 주로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곳으로의 사회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東武의 ‘天下’에서 작용하는 인간 삶의 갈등에는 朱子學의 七情에서 근거한 喜怒哀樂이 그 중심에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것이 질병 발생의 주체인 인간의 체질을 형성하고 이 체질형성에 관여한 각 情志가 질병을 발생시키고 또한 심리적 안정을 통한 그 攝生의 치료에 큰 관여를 한다.

사상의학에서 중요시되는 인간사회와 喜怒哀樂은 심신의학에서 질병의 발생과 경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心理的 因子와 사회적 因子라고³⁾ 한 것과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질병을 보는 관점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心身醫學과 사상의학이 동일한 요인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신의학에서 중요시하는 心(마음)과 病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心身症적인 측면에서 사상의학의 응용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자료

1.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2000년 판 간행 原文 對譯 東醫壽世保元⁴⁾과 2000년 판 格致藥解析⁵⁾의 원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원문내용은 東醫壽世保元은 「」로 格致藥은 「」로 표시하였다.

3. 원문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은 <>로 앞쪽에 표시하였다.

4. 각 원문에 있어서의 直譯은 생략하고 논술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간단한 해석을 붙였다.

III. 본론 및 고찰

1. 사상의학의 心身觀

사상의학은 慾이 발현하는 心과 性情이 발로하는 肺脾肝腎이 유학적 틀 속에서 각기 다른 위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肺脾肝腎의 기능은 事務, 交遇, 黨與, 居處 등의 사회적 국면에서 정해지며 耳目口鼻의 감각기관들도 天時, 世會, 人倫, 地方 등의 사회적 여건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²⁾.

결국 肺脾肝腎은 心身의 관계에서 身이라는 육체 그 존재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사상의학에서 추구하는 그 철학적 세계를 이루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사상의학에서의 身은 심신의학 말하는 形而下學的 신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形而上學的인 개념이다. 즉 <反誠箴·巽箴> 「身有兩用 誠身 敬身也 心有兩用 理心 利心也」라 한 것과 같이 心身을 관찰함에 있어 誠身敬身과 理心利心으로 나누었으나, 身에 해당하는 몸을 성실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도 마음을 다듬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니 역시 心身觀에 있어 마음 즉, 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心身觀의 시작은 《儒略·事物》「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라고 한 바와 같이 四構造論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事心身物은 東武가 세상을 네 가지 형태의 철학적 유형으로 본 產物로서 구체적인 적용은 肺脾肝腎과 四體質과 같은 四元構造의으로 발전되는데, 여기서 事와 心이 조금은 上位構造의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취하는데 비해 身과 物은 下位構造의이며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다. 즉 여기 格致藁의 心觀은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의 身觀과 결합되어 東醫壽世保元 전체의 心身觀을 형성한다.

이러한 心과 身이라는 二元構造의인 측면에서도 《反誠箴·巽箴》「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物心身之心 四象之心也。」《四端論》「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라 하여 心과 身을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 본 것이 아니라, 心 중심적 사고로 身을 지배하거나 다른 四臟에 비해서 우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臟腑論》「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臆中 光明瑩澈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頤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라 하여 心의 올바른 기능 또한 身에 해당하는 耳目鼻口, 肺脾肝腎, 頤臆臍腹, 頭手腰足의 원활한 작용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보아 역시, 心이 身을 主宰할 뿐만 아니라 心도 身에 해당되는 각 부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心 중심의 사고는 결국은 발전하여 心(心慾)의 표현형태인 인간의 감정(喜怒哀樂)이 체질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主宰的 위치의 心도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反誠箴·兪箴》「以一人之心 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易知 小人之心難知 易知之心多 而難知之心少者 名曰君子 難知之心多 而易知之心少者 名曰小人。」《四端論》「聖人之心無慾也 衆人之心有慾也 以聖人之一無慾之心 處於衆人萬有慾之中 衆人者 聖人之所憂也。」라 하여 각각 君子와 聖人, 小人和 衆人으로서 나누어져 있는데 君子와 聖人의 마음은 알기도 쉽고 또한 욕심이 없는 것으로 小人和 衆人의 마음은 알기 어렵고 욕심도 많다고

하여 心의 올바른 모양을 君子와 聖人の 것으로 보았으며 그 마음의 형태는 堯舜과 孔孟의 예를 들었으니, 《四端論》「聖人之心 無慾云者 非清淨寂滅 如老佛之無慾也 聖人之心 深憂天下之不治 故非但無慾也 亦未暇及於一己之慾也 深憂天下之不治 而未暇及於一己之慾者。」라 하여 老子나 佛敎에서의 無慾과는 다르게 堯舜이나 孔孟의 마음과 같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 天下에 대한 걱정만 하는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생각하는 利他的인 것으로 보았다.

한편 心 자체의 四構造의인 측면에서는 《性命論》「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耳目鼻口之情.....好善也 好善之實 極公也 極公則亦極無私也 肺脾肝腎之情.....惡惡也 惡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則亦極公也 頤臆臍腹之中 自有不息之知 如切如磋 而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則 自棄其知 而不能博通也 頭肩腰臀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喧兮 而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 則自棄其行 而不能正行也。」라 하였다. 이는 心을 네 부류로 나눈 것으로, 耳目鼻口의 好善之心과 肺脾肝腎의 惡惡之心과 頤臆臍腹의 驕矜伐夸之心과 頭肩腰臀의 奪侈懶竊之心이다. 好善之心이란 極公之心이며, 惡惡之心이란 極無私의 心이고, 驕矜伐夸之心은 私心이며 奪侈懶竊之心은 慾心이다. 여기서 앞의 두 마음은 君子 및 聖人의 心에 비유 될 수 있고, 뒤의 두 마음은 小人和 衆人의 心에 비유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身에 해당되는 耳目鼻口, 肺脾肝腎, 頤臆臍腹, 頭肩腰臀에 두 부류의 네 가지 心을 배속시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마음의 대상으로 仁義禮智之人을 설정하고 이에 대비되고 버려야 할 인간의 마음으로 鄙薄貪懶之人의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四端論》「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인데 여기서의 鄙薄貪懶人은 마음의 차원에서의 인간의 不完全性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간이 버려야 할 마음으로 인정되어 진다.

이렇게 東武哲學에 있어 心觀은 유학적 바탕의

중심이 의학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인데, 유학적心性이 인간과 인간관계 즉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이 확대되고 한 인간의 신체적 상태에까지 큰 관여를 하는 것과 함께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 졌다.

결국 동무의 心身觀은 유학이라는 요소와 心이 身에 대하여 主宰的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심신의학에 있어 心과 身을 보는 기본적 관점은 같으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탕이 유교라는 전통적 사고라는 것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性情의 喜怒哀樂의 이해

사상의학의 학문체계는 喜怒哀樂에 의해 그 기준과 개념이 확립되었다. 인간의 윤리철학으로는 체질적 구분이 가능하지 않았기에 이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쓰여진 것이 喜怒哀樂이다.

喜怒哀樂이 마음속에서 아직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것을 性이라 하고 감정으로 나타내면 그것을 情이라고 한다. 다만 어떤 계기나 촉발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감정(情)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체질별 喜怒哀樂의 性情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질병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고 사상체질에 따른 心性분석을 하는데 기본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⁶⁾. 그러면 다른 형태의 情緒的 표현을 두고 喜怒哀樂 즉 四情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中庸에서는 感情을 喜怒哀樂 四者로서 概括하였는데 이를 始發로 하여 그 후의 중국의 철학자들 및 조선의 性理哲學者들도 대개 喜怒哀樂으로서 七情을 代辯하거나 兩者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孟子가 제시한 四端之心的 개념은 七情과 함께 후대 四端七情論의 源泉이 되었으며 朱子가 四端은 理의 發이고 七情은 氣의 發이라 하여 四端七情論과 理氣論이 결합되어 논의된 이래 특히 七情論은 조선 性理學史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七情과 四情의 용법상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모두 마음에 일어나는 感情이 總名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東武

가 인간의 情志를 醫學에 적용하면서 왜 전통적인 七情을 버리고 굳이 四情으로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喜怒哀樂은 각 감정의 상태에서 氣의 上下升降하는 운동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氣의 上下升降의 운동성으로 生病理的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⁷⁾.

이러한 四情은 格致藁에서는 《反誠箴·乾箴》 「往必有哀 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 人性也 往來臨立 天命也。」라 하여 인간의 본성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또한 《反誠箴·乾箴》 「喜怒哀樂者 來往立臨之間 與人相接之性 而有節不節也 戒愼恐懼者 不來往不立臨時 自己獨得之性 而有中不中也 自己獨得之性盡於內 則與人相接之性盡於外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時措之宜也。」라 하여 喜怒哀樂은 與人相接之性, 戒愼恐懼는 自己獨得之性이라 하고 自己獨得之性 즉 戒愼恐懼의 未發之性이 안쪽에서 발전하여 밖으로 與人相接之性이며 已發之性인 喜怒哀樂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道라고 하였다. 이렇게 格致藁의 四情은 체질적 구성의 요건 보다는 人性 그 자체로 보았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四端論》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이라 하여 喜怒哀樂의 四情에 氣의 動的인 개념이 더해지면서 喜怒哀樂之氣의 順動은 性으로 喜怒哀樂之氣의 逆動은 情으로 작용하여 臟局의 형성에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데⁸⁾, 이때는 喜怒哀樂이 인간의 性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性情論의인 입장에서 파악한 四體質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四端論》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이상의 性情論的인 입장에서의 체질의 구분은 喜怒哀樂의 性情의 치우침인데 性의 치우침은 大 한 臟을 형성하고 情의 促急은 小한 臟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서 心慾에 따라 鄙薄貪懦人으로의 구분과는 다른 바탕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상의학의 임상적 체질구분의 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性情에 의한 각 四體質의 특징은 《擴充論》「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 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 而不欲外勝。」인데 각 체질마다 '進, 舉, 靜, 處'하려는 性氣와 '雄, 雌, 外勝, 內守'하려는 情氣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사상의학에서는 喜怒哀樂을 인간의 性情으로 이해하고, 喜怒哀樂은 발전되어 사상의학의 핵심인 체질적 구성요소로 까지 발전하게 되고 질병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喜怒哀樂은 사상의학적 心身症 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을 알 수 있다.

3. 四情에 의한 病證의 발생

일찍이 內經에서도 《素問·經脈別論》에 “凡人之驚恐悲勞動靜 皆爲變也. 是以夜行則喘出於腎 淫氣病肺.....勇者氣行則已 怯者則著而爲病也. 故曰 診病之道 觀人勇怯 骨肉皮膚 能知其情 以爲診法也.”⁹⁾라 하여 驚恐, 悲勞와 같은 情志가 발병의 요소로 작용하고 性情의 차이에 따른 질병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 自然과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을 중요시한 內經의 전체적인 疾病觀에 비해 經脈別論의 내용은 內經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사상의학의 性情에 의한 체질적 病理觀 및 질병발생과 비유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서 사상의학의 性情의 차이에 의한 각 臟局의 특징에 따른 체질적 의미에서는, 喜怒哀樂의 四氣에 따라 각 四象人의 生理的 상황이 깨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의 질병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병인은 그 발병의

對象이 되는 인간에게 內在되어 있다. 그러므로 喜怒哀樂의 偏着이 질병 발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즉 壽世保元에서의 逆動, 暴動, 浪動, 偏急, 極不濟, 極不勝, 極不成, 極不服하다는 것으로 표현된 性情의 균형상실은 질병을 발생한다. 그러면 性情에 따른 질병발생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四端論》「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哀怒之氣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哀怒之氣逆動 則暴發而竝於上也 喜樂之氣逆動 則浪發而竝於下也 上升之氣逆動而 竝於上 則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 則脾肺傷.....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

이상은 喜怒哀樂을 上下로 움직이는 氣의 개념에서의 그 병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 哀怒와 喜樂의 氣運이 적당히 위와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順動이라하여 그 性의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過하여 逆動의 상태가 되면 해당 臟局에 손상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太陽人 病證論·太陽人 內觸小腸病論》「太陽人 哀心深着則傷表氣 怒心暴發則傷裡氣 故 解衣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然則 少陽人 怒性傷口膀胱氣 哀情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傷目膈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 喜性 傷耳腦顛氣 樂情 傷脾胃腕氣乎.」라 하여 각 四體質인에 따른 性과 情에 따라 太陽人은 表氣와 裏氣를 損傷하고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은 각각 口膀胱氣, 目膈氣, 耳腦顛氣와 腎大腸氣, 脾胃氣, 肺胃腕氣를 損傷한다고 한다.

또한 《四端論》「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 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 則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 則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 則侈樂無厭.」이라 하여 喜怒哀樂의 四情은 서로 相成, 相資하는 가운데 그 性情간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각각 忿怒激外, 悲哀動中, 喜好不定, 侈樂無厭하게 되어 질병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喜怒哀樂의 四情은 인간의 性情의 의미와 함께 병리적인 작용도 한다. 內經에서도 《素問·舉痛論》에 七情의 偏着은 氣에 작용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內經에서의 喜怒哀樂을 포함한 七情의 氣에 대한 영향은 東武의 上下升降의 氣의 변화보다는 다양하다. 그리고 《靈樞·百病始生》“夫百病之始生也 皆生於風雨寒暑 清濕喜怒 喜怒不節則傷臟 風雨則傷上 清濕則傷下”¹⁰⁾라 하여 百病 즉 모든 병의 발생에 喜怒로 대표되는 情志는 ‘臟’이라는 인체에 있어 일부분을 손상한다고 하나 東武는 情志로 볼 수 있는 喜怒哀樂이 모든 병의 발생에 있어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어 內經에서 보다 좀더 확대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四情에 의해 질병의 발생이 좌우되고 각 체질별 질병 발생의 요인과 결과가 四體質人의 性情에 의한다는 것은, 사상의학의 핵심인 동시에 심신의학과는 각각 같으면서도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四情으로 대표되는 情緒의인 내용이 원인이 되고 또한 발병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찾아보면 먼저 《四端論》「頻起怒而頻伏怒 則腰脇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 則肝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 則胸腋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闊狹不定 則脾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 則脊曲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 則腎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 則背顛暴揚而暴抑也 背顛者 肺之所住着處也 背顛抑揚不定 則肺其不傷乎.」라 하여 怒喜哀樂이 각각 신체의 부위인 腰脇, 胸腋, 脊曲, 背顛의 손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肝脾腎肺의 손상을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특징적인 것은 신체와 四臟의 손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앞에서 논의한 心身症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廣濟說》「幼年七八歲前 聞見未及 而喜怒哀樂膠着 則成病也 慈母宜保護之也 少年十四五歲前 勇猛未及 而喜怒哀樂膠着 則成病也 智父能兄宜保護之也.」라 하여 幼年과 少年기에 각각 見聞과 勇猛의 부족으로 인한 喜怒哀樂의 膠着이 병을 이룸을 말하여 나이에 따른 性情의 偏着에

다른 발병을 강조하고 있고, 《廣濟說》「酒色之殺人者 人皆曰酒毒枯腸 色勞竭精云 此知其一 未知其二也. 縱酒者 厭動其身 憂患如山 惑色者 深愛其女 憂患如刀 萬端心曲 與酒毒色勞 并力攻之而殺人也.」라 하여 酒色보다도 泰山과 같은 격정과 갈라진 마음이 질병을 발생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질병 발생의 情志的 요인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상 살펴본 晝와 같이 개별적 性情의 발현형태 자체가 發病의 주요한 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시각도 인간을 사회 속에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의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이는 病因이 밖에서 객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을 앓는 주체의 性情의 발로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²⁾과 인간 개개의 각기 다른 性情의 發顯도 결국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 때문에 개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상의학이 ‘天下’를 통하여 인간의 性情의 개별성이 정해진다는 것이 심신의학이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多樣性이 心因이 되어 병이 된다는 것과는 相通하는 내용이다.

4. 心因에 의한 四象人 病證

각 太少陰陽人에 있어 情志의 失節이 질병의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少陰人

《少陰人 病證論·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嘗治 少陰人 十一歲兒 汗多亡陽病 此兒 勞心焦思 素證有時以泄瀉爲憂 而每飯時汗流滿面矣.」, 《少陰人 病證論·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嘗見 少陰人 十歲兒 思慮耗氣 每有憂愁 一二日則必腹痛泄瀉.」, 《少陰人 病證論·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凡 少陰人病 泄瀉初證者 當觀於心煩與不煩也.」라 하여 少陰人은 勞心焦思, 思慮過多, 憂愁, 心煩 등이 증상의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과도한 심리적 부담이 여러 가지 병리적 상황을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少陰人 病證論·少陰人 胃受寒裏寒病

論》「論曰 少陰人 喜好不定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라 하여 少陰人은 기빠하고 좋아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계획한 것을 도모하는 것이 좌절 되면 가슴이 煩燥하게 된다고 하여 역시 심리적 부담이 心煩躁라는 증상형성에 영향을 준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少陽人

《少陽人 病證論·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鶻突 意思艱乏 則 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生此病也.....此元氣也 清陽也 勞心焦思 則陽氣下陷 重濁 而鬱熱於頭面四肢也 此 火氣也 耗陽也。」라 하여 消渴病은 사람의 마음이 관대하고 활발하지 못해서 清陽의 上升之氣가 충분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清陽之氣는 元氣를 말함이며 역시 勞心焦思 즉 心慾에 의해 元氣 또한 변화되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3) 太陰人

《太陰人 病證論·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太陰人病.....此之謂長感病 其病爲重證也. 此證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脘衰弱 表局虛薄 不勝寒而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 《太陰人 病證論·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凡 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淋病小便不利 食後痞滿 脚腿無力病 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 而此時以浮腫論 而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 可也.」, 《太陰人 病證論·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太陰人證 有夢泄病.....此病 出於謀慮太多 思想無窮.」라 하여 太陰人의 長感病과 險病인 浮腫 및 夢泄病 설명함에 있어 勞心焦思나 謀慮太多와 같은 고민이나 심리적 불안정이 원인이 됨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長感病에 있어서는 勞心焦思라는 情緒의 불안정이 正邪相爭에 있어 正氣 즉 저항력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한다.

《太陰人 病證論·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此病 非必不治之病也 此少年 得病 用藥一周年後 方死 蓋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라 하여 太陰人 燥熱病의 원인

이 侈樂無厭, 慾火外馳 즉 삶의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여 그 慾火가 밖으로 치달아 肝熱이라는 臟腑의 병적 상황으로 발전하여 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4) 太陽人

《太陽人 病證論·太陽人 內觸小腸病論》「太陽人 噎膈病 太重於解休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 哀心深着則傷表氣 怒心暴發則傷裡氣 故解休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라 하여 太陽人 噎膈病과 解休病이 발생함에 있어 太陽人의 性情에 해당하는 怒哀가 원인이며 이것이 각각 表氣와 裏氣를 손상한다고 하여 체질에 따라서는 情志의 차이가 질병 발생에 있어 輕重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보여주듯 東武는 구체적인 病證을論하는 과정에서 주로 難治病을 설명할 때 心慾과 性情의 偏急과 病證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마음으로 오는 병은 그 증상 자체도 상당히 깊고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5. 四象人 病證의 치료와 養生觀

사상의학은 性情論에 입각한 養生을 그 질병의 치료에 있어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심신의학에서 심리적 안정을 통한 치료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상의학은 《廣濟說》「天下之受病 都出於妬賢嫉能 天下之救病 都出於好賢樂善 故曰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라고 한 것과 같이 발병의 원인이 이미 발병의 主體 안에 주어져 있고 이것이 性情의 偏急이라는 內的상황이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그 치료의 방안이 동시에 內在되어 있다는 것은 심신의학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즉, 病證의 發現이 다름 아닌 主體내부의 喜怒哀樂 性情의 偏急으로 출현하는 것이므로 그 치료도 우선적으로 性情의 조절이라는 노력으로 귀결된다. 약물 또한 太少陰陽人 각각의 고유한 喜怒哀樂의 기운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구별 지워지고 투여

되며, 대개의 경우 약물의 투여는 주체적 노력이라는 주 치료와 병행되는 보조요법의 의미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의 관리와 예방은 역시 환자 본인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²⁾.

이와 관련하여 心性의 관점에서 각각 《性命論》「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而責之者清 不責者濁.」, 《四端論》「浩然之氣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 四臟之氣 擴而充之則 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懦 一心之慾 明而辨之 則浩然之理 出於此也.」라 하여 그 心과 心慾을 꾸짖고 올바르게 밝히면 밝은 마음을 가지고 浩然之理가 나온다고 하여 性情의 조절로서 治心治病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心慾은 《四象人 辨證論》「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 則居之安 資之深 而造於道也 怯心益多 則放心桎梏而物化之也 若怯心至於怕心 則大病作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 則居之安 資之深 而造於道也 懼心益多 則放心桎梏 而物化之也. 若懼心至於恐心 則大病作而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 則脾氣即活也.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寧靜 則肝血即和也.」라 하여 각 太少陰陽人마다 타고난 恒心이라는 측면에서 특징적인 질병의 발생과 함께 恒心の 安定이라는 상황이 질병의 예방과 養生의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四端論》「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라 하여 四象人 발병의 원인인 喜怒哀樂 性情의 偏急은 行身不誠과 知人不明에서 나온다고 하여 知行的 조절을 통한 질병 예방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올바른 知行을 통한 養生은 《四端論》「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라고 하여 각 四象人에 內在된 性情에 따른 情緒的 조절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도 서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각 四象人 性情의 조절을 통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少陰人에 대하여는 《少陰人 病證論·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少陰人 喜好不定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何故 至於計窮力屈 而得此少陰病乎 何不早用君子寬平心乎.」라 하여 少陰人의 臟厥病에 대하여 君子와 같은 넓은 平靜心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少陽人에 대하여는 《少陽人 病證論·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少陽人 恒有腹痛患者.....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如此延拖 一周年而病愈 又見 少陽人小兒 恒有滯證痞滿 間有腹痛腰痛 又有口眼喎斜初證者.....使之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一百日而 身健病愈.」, 《少陽人 病證論·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消渴者.....平心靜思 則陽氣上升 輕清 而充足於頭面四肢也.」라 하여 腹痛, 滯證 및 口眼喎斜 初證에 있어 少陽人 性情인 哀怒를 경계하라 하는데 이는 少陽人 性情의 促急이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消渴에 있어서는 안정된 마음을 가짐으로써 陽氣가 輕清하게 上升하여 그 陽氣의 下陷으로 발생된 消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太陰人에 대하여는 《太陰人 病證論·肝受熱裏熱病論》「太陰人 有腹脹浮腫病.....戒侈樂 禁嗜慾 三年內 宜恭敬心身 調養慎攝 必在其人矣.」, 《太陰人 病證論·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若此小年 安心滌慾一百日而用藥 則焉有不治之理乎.」라 하여 太陰人이 腹脹浮腫과 燥熱病에 대해 心慾을 버리고 경계하는 마음의 攝生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太陽人에 있어서는 《太陽人 病證論·太陽人 外感腰脊病論》「此證 卽太陽人腰脊病 太重證也 必戒深哀 遠嗔怒 修清定然後 其病可愈 此證 當用 五加皮壯脊湯.」, 《太陽人 病證論·太陽人 內觸小腸病論》「太陽人 小腸病 太重證也 必遠嗔怒 斷厚味然後 其病可愈.」, 《太陽人 病證論·太陽人 內觸小腸病論》「太陽人解休病治法 曰戒深哀 遠嗔怒 修清定 論噎膈病治法 曰遠嗔怒 斷厚味.」라 하여 太陽人 性情인 怒哀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 그 각각의 危重證을 치료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東武의 養生觀의 단적인 면은 《濟衆新篇·勸壽論》「百病生於心火 土人一日再食 農夫

一日或三食 見事應變 不過用心火 則無不得壽。」, 《濟衆新篇·知行論》「心不可以放蕩 放蕩則損知. 身不可以偷逸 偷逸則損行。」라 하여 각각 心火 즉 마음의 병을 조절하는 것이 장수하는 길이라고 하고, 知行을 행하는데 필요한 몸과 마음가짐에 있어 특히 마음을 방탕하게 쓰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사상의학은 性情論에 입각한 養生을 치료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心身醫學에서 각종 心身症의 치료에 있어 暗示療法, 自律訓練法, 筋弛緩法과 같은 心理療法을 이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³⁾과는 동일한 치료적 비중을 둔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사상의학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心身觀에 있어 사상의학과 심신의학이 心중심이라는 사고는 같으나, 사상의학의 心觀은 儒家的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2. 喜怒哀樂으로 대표되는 性情은 사상의학에서는 발병과 관련된 각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또한 그 질병자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심신의학에서는 心因에 의한 질병유발만을 인정한다.

3. 사상의학에서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은 四象人 각각의 性情에 의한 養生을 강조하고 약물요법은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심신의학에서 暗示療法, 自律訓練法, 筋弛緩法과 같은 心理療法에 치료의 비중을 두는 것과 서로 통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사상의학의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는, 유교와 같은 한국인 고유의 思想觀에 의한 인간 心性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경봉. 스트레스와 정신신체의학. 서울:일조각. 2002:136-7.
2. 孫祥坤, 宋一炳. 東武 李濟馬의 心身觀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7;9(2):115-116,128,143.
3. 黃義完. 心身症. 서울:행림출판. 1985:16,149.
4. 李濟馬著 동의학연구소 譯. 東醫東醫壽世保元. 서울:여강출판사. 2002:25-26,30-34,36-40, 48,60,83,105,107,109,183,217,233,235,253,255,259,267,273,275,279-280,467.
5. 李濟馬原著, 池圭鎔譯解. 格致藁譯解. 서울:永林社. 2001:36,220,242,374,472,477.
6. 송병욱. 사상의학의 이해(上). 서울:행림출판. 1997:106-7.
7. 池圭鎔, 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中 四情의 作用機轉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3;5(1):53,55.
8. 宋一炳 외. 四象醫學. 서울:集文堂. 2001:84.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研究院. 1885:p.86.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研究院. 1885:p.286.
11. 金芝英, 宋一炳, 高炳熙. 지행론에 관하여(독행편, 성명론, 사단론). 사상의학회지. 1995;7(2):200.